

여성·가족 행복한 전북 만든다

‘전북여성가족재단’ 출범... 20일 전북 변화 함께 할 미래 비전 공유 출범식 진행

12일 전북여성가족재단이 공식 출범했다. 전북은 전북연구원 산하 여성정책연구소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로 이원화 돼 있었다. 이로 인해 정책연구와 실행기능의 통합은 2010년부터 언론과 여성계, 도의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후 민선 8기 도지사직인 수위에서 여성·가족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연구과제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김관영 지사의 강력한 의지로 가시화됐다.



전북여성가족재단

이에 따르면 기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담당하던 여성역량강화교육 및 여성일자리지원과, 여성정책연구소의 여성·가족 정책연구 및 위탁기관인 거점형양성평등센터, 성별영향 분석평가센터가 함께한다.

더불어 지난 8월 전라북도 공기업·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가' 등급을 달성,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가등급의 쾌거를 이뤘다. 올해는 16개 기관 중 최고점수를 획득했다. 한편 전북여성가족재단은 20일 오후 1시30분

전북의 변화와 함께 할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출범식을 진행기로 했다.

출범식에서 여성·가족 정책 허브 기능을 공표하고 하고자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위상에 맞는 양성평등 사회 구축, △여성가족정책 추진기반 확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연구·정책·실행 생태계 완성으로 창의 혁신 조직 구축의 목표를 구체화하는 16개 실행과제를 공유할 예정이다.

전정희 원장은 “전북여성가족재단 출범과 함께 도내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가등급을 획득함으로써 경계사를 맞아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면서 “전북 도민 모두가 평등하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여성가족재단 출범과 관련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jbwf.or.kr/>)나 행정지원팀(063-254-384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한국가요촌 달하 운영·관리 업체 ‘전주방송’ 선정

정읍시,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식 진행

정읍시는 12일 한국가요촌 달하 운영·관리를 위해 ㈜전주방송을 민간위탁 위·수탁 업체로 선정하고 계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한국가요촌 달하의 활성화를 위해 공개 모집 절차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수탁기관으로 ㈜전주방송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전주방송은 오는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3년간 한국가요촌 달하를 위탁 운영하게 된다.

주요 위탁사무는 △한국가요촌 달하 운영 및 관리 종합계획수립 △한국가요촌 달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민을 위한 각종 문화사업 및 정읍시 관광 홍보 △한국가요촌 달하 시설 및 장비 재산관리 및 시설사용료 부과·징수 △진시안 및 시설



정읍시는 12일 한국가요촌 달하 운영·관리를 위해 ㈜전주방송을 민간위탁 위·수탁 업체로 선정하고 계약식을 진행했다.

물 운영 △한국가요촌 달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이다.

신정동에 위치한 한국가요촌 달하는 2019년

에 백제가요 정읍시를 주제로 조성된 관광지로 올해 6월에 명칭 공모를 통해 정촌가요특구에서 한국가요촌 달하로 명칭을 변경했다. 앞으로 수탁기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하고 특색 있는 전시, 체험과 프로그램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화수 시장은 “이번 위·수탁 계약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한국가요촌 달하의 활성도가 기대된다”면서 “한국가요촌 달하가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정읍의 대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방송 한명규 대표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향유의 기회 제공과 한국가요촌 달하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은성 기자

“찾아가는 문화장터서 문화누리카드 이용하세요”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문화장터’를 입실과 익산에서 4회에 걸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적 여건, 고령 등으로 인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용이 어려운 도내 지역 주민을 위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 지

점 찾아가는 행사다. 12일은 익산 동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3일은 임실 오수면사무소 다목적실에서 각각 개최된다.

장터에서는 미술, 공예, 캠핑용품, 체육용품 등 전북지역 문화누리 협력가맹점인 문화마을이 엄선한 다양한 제품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또는 일반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하며, 문화누리카드 7만원 이상 구매 시 선착순(영수증 지참 필)으로 밀폐 반찬통을, 전액소진 시 히말라야 핑크소금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찾아가는 문화장터를 통해 상품 정보 접근이 어려운 노년층의 문화누리카드 이용이 활성화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하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세계 19개국 도예작품 ‘한눈에’

남원국제도예캠프 기획초대전 10월 8일까지 개최

남원시 문화문화예술회관에서는 세계적인 사쓰마 도자기를 만들어낸 남원 도자 문화의 역사와 우수성을 알리고 국제적인 작가들과의 교류와 전시를 통해 남원 도예 산업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12일부터 10월 8일까지 ‘현대도예의 율리’이라는 주제로 제12회 남원국제도예캠프 기획초대전이 개최된다.

남원국제도예예술연구센터(이사장 김광길)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와 남원시가 후원하는 기획초대전에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터키, 그리스 등 세계 19개국 138명의 작가(국내 90명·해외 48명)가 초대되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새로운 도예기법과 다양한 도예작품들이 소개되어 전 세계의 도예작품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월 6일~8일까지 실시되는 도예캠프 초청작가 워크숍과 실기 강의는 6개국 총 21명(국내 12명·해외 9명)의 작가가 초청되어 2박 3일 시연과 강연을 통하여 새로운 도예기법과 기술을 전수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예캠프 대미를 장식할 물레경전대회는 10월 9일 오전 8시에 도예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 일반작가와 여중, 강진 등 물



레대장의 경정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며 △대상(전라북도지사상) 1명(STI 전기가마와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남원시장상) 1명(상금 100만원) △우수상(남원시의회 의장상) 2명(상금 50만원) △장려상 3명(상금 30만원) △특별상 3명(상금 20만원)을 시상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창업대전서 거리극 퍼레이드 진행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13일 오후 6시에 전주 전라감영 일원에서 전북창업대전의 열기를 더할 특별한 거리극 퍼레이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2일 재단에 따르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해 행사의 성공 개최와 도내 문화관광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공연을 기획했다.

이번 공연은 제8회 전북창업대전의 창업인포식 식전 공연으로 합천마을문화생산자협동조합(이하 합천마을)이 진행하며, 전북무형문화

재인 전주기집놀이와 농악이 어우러진 퍼레이드 공연을 통해 한껏 흥을 돋울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전북예술회관에서 전라감영까지 종로와 기쁨이 행진이 펼쳐지며, 거점지역인 전라감영에서는 농악과 연희공연, 기집놀이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합천마을의 ‘전주 전통연희 퍼레이드’는 전라북도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 사업에 선정돼 전주한옥마을에서 10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에 만나 볼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최초전시지원 프로젝트’ 이은하 작가 첫 개인전 개최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1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전북예술회관 3층 산마루 전시실에서 이은하 작가의 첫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개인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최초전시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내 최근 5년 이내 개인전 이력이 없는 경력 단절 시 각 분야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시각분야 전문예술인에게 창작활동 동기 부여 및 예술활동증명 등록 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했다. 작가에 따르면 우리 민족의 민화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익살스러운과 자유분방한 표현, 일상생활에서의 활용 가능성 때문에 민화의 매력에 푹 빠져 지난 세월동안 난 그림이 아닌 인생을 배웠다라고 감회 말하고 싶다. 이은하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민화가 더 많이 알려지고 옛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더해져 활용도 높은 민화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